화되어 권위를 요구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미 교리싸움이 시작되었다. 바울로가 “우리 자신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갈라 1, 8~9)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벌써 현실적으로 기동성을 잃은 폐쇄현상의 노출이다. 사도권과 예루살렘 교회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무의미하며(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없어졌으며 제도적 지도체제가 깨어졌으니까), 그것은 밑바닥에서 해매는 민중에게 현재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넷째로, 저들은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저들은 부활과 관계없는 죽음의 경지에 있으나 어떤 구원의 손도 기대하지 못하고 어떤 초월적 경험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런 마당에 예수의 십자가사건이 그들을 과거의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교리가 어떤 호소력이 있을까? 도대체 그 현장에서 죄를 논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십자가(죽음)의 사건이 지금의 저들이 받는 죽음의 위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과제는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살려는 욕구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 이런 가설적 전제 —그것은 바로 물음이기도 하지만—를 갖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마르코복음을 보려는 것이다(아래에서는 제도화된 교회문제의 논점은 생략하겠다).

3. 마르코의 민중신학의 기초

마르코의 신학적 기초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다.¹⁴⁾ 킴멜은

14) W. G. Kümmel,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S. 46~53; J. Gni-

1장 14~15절이 마르코신학의 기초라고 단언한다. 마르코복음을 각기 여러 단계로 나누는데¹⁵⁾ 어떻게 나누든지 간에 1장 14~15절을 마르코복음의 총집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른바 케리그마 성서학자들도 이미 이 사실을 지적했으나 사실 15절에만 관심하여 그것이 예수의 설교의 집약이라고 했을 뿐,¹⁶⁾ 14절과의 관련에서 15절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시도는 거의 볼 수 없다. 클로스테르만(E. Klostermann)은 14절이 마르코의 편집구임을 전제하고 예수 설교의 시간과 지역의 틀에 두면서 성격화한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결국은 초대교회의 선교용어로 이차적 의미밖에는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의 사건으로서 예수의 하느님 나라 설교의 새로움이 강조된 것은 ‘내실적으로 사실’이라고 할 뿐이다.¹⁷⁾ 그날카도 비록 이 구절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해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史實, Historie)이 아니라 하나의 구속사적 도식이라는 재래의 입장에 머물고 있다.¹⁸⁾

lka, *op. cit.*, S. 17~35(서설) 참조.

- 15) 가령 Kümmel은 다섯 단계로, 즉 ① 갈릴래아 예수 ② 갈릴래아 내외에서의 순행 ③ 예루살렘 도상 ④ 예루살렘의 예수 ⑤ 고난과 부활 설화로 나눈다. Gnllka는 ① 출발 ② 민중과 예수 ③ 예수의 교훈과 기적 ④ 지향없는 순행 ⑤ 십자가를 질: 각오 촉구 ⑥ 예루살렘에서의 행태 ⑦ 고난과 죽음과 빈 무덤 등으로 구분한다(번호는 다르나 순서는 같음). 결국 사건을 지리적으로 압축하면 둘 다 ① 공생애 출발 ② 갈릴래아에서의 민중과 예수 ③ 예루살렘에서의 수난과 처형의 순서이다.
- 16) R. Bultmann, *Die Geschichte der Synoptische Traditions*, 1957, S. 124, 134; G. Bornkamm, *Jesus von Nazareth*, 1956, S. 58.
- 17) E. Klostermann, *Das Markusevangelium(HNT)*, 1950, 동 구절 주석 참조.
- 18) J. Gnllka, *op. cit.*, S. 65. Klostermann도 역시 이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구속사적 도식이냐 역사적 회상이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도 역시 전자에 기울어지고 있다.

이 항목을 디벨리우스의 양식사 연구에 적용한다면 파라디그마(Paradigma)적 양식이다. 양식사적 시각에서 보면 14절은 그 상황(틀)이다. 그런데 양식사학자들은 15절이 중요할 뿐 14절은 상황(틀)으로서 15절의 성격을 확실히 하기 위한 간접적 기술의 역할만을 한다고 보고, 사실상 14절을 무시해버리는데, 이러한 해석은 거부되어야 한다.

1) 세례자 요한이 잡힌 후(14a절)¹⁹⁾

이것은 바로 정치적 상황을 말한다. 이런 상황이 곧 예수가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한 장이다. 세례자 요한을 체포한 안티파스의 지배영역인 갈릴래아에서 예수가 이런 선포를 했다는 것은 벌써 하느님 나라가 후퇴하고, 비시간적인 '하느님의 의'가 대신하는 경향(바울로)이 지배적일 때에 그런 경향과는 달리 중요한 다른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다.

마르코에 있어서 예수가 갈릴래아로 간 것은 마태오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마태오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예수의 본향이라고 한다. 그리고 헤로데의 박해를 피해서 에집트로 갔다가 헤로데가 죽은 후 귀향하려고 하지만 헤로데의 아들 아르켈라오 역시 위협한다는 정보를 듣고 갈릴래아로 피해갔다고 한다. 그러나 마태오와는 정반대로 마르코는 예수가 오히려 위험지대를 위험한 시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도한다. 민중이란 일차적으로 지배자에 대하여 피지배자를 말하는 것이라면²⁰⁾ 이러한 보도를 통하여 마르코는 예수의 민

19) '잡히다'의 *παράδοθηναι*는 처형되었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E. Klostermann, 동 구절 참조).

20) 서남동, 「민중의 신학」, 『신학사상』 제24호, 1979년 봄호 참조.